



새롭게! 다양하게!

R&BD 맞춤형

김관태 R&BD본부장

고객홍보팀

2016년 8월 현재, 다양한 현안들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매일이 긴장 상태고, 직원들은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축산물등급제와 이력제, 축산유통조사와 연구사업들은 기본, 여기에 청탁금지법 TF 업무나 제1회 축산·수의 분야 취업·창업 박람회 사무국 등까지 더해 각 층의 분위기는 어떤 팀이 있냐에 따라 조금씩 다름지언정 오늘도 뜨겁다.

그중에서 이번 달 인터뷰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들머선 곳은 연구개발팀과 정보사업팀으로 구성된 R&BD본부가 위치한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 본원의 2층. 여기에 김관태 R&BD 본부장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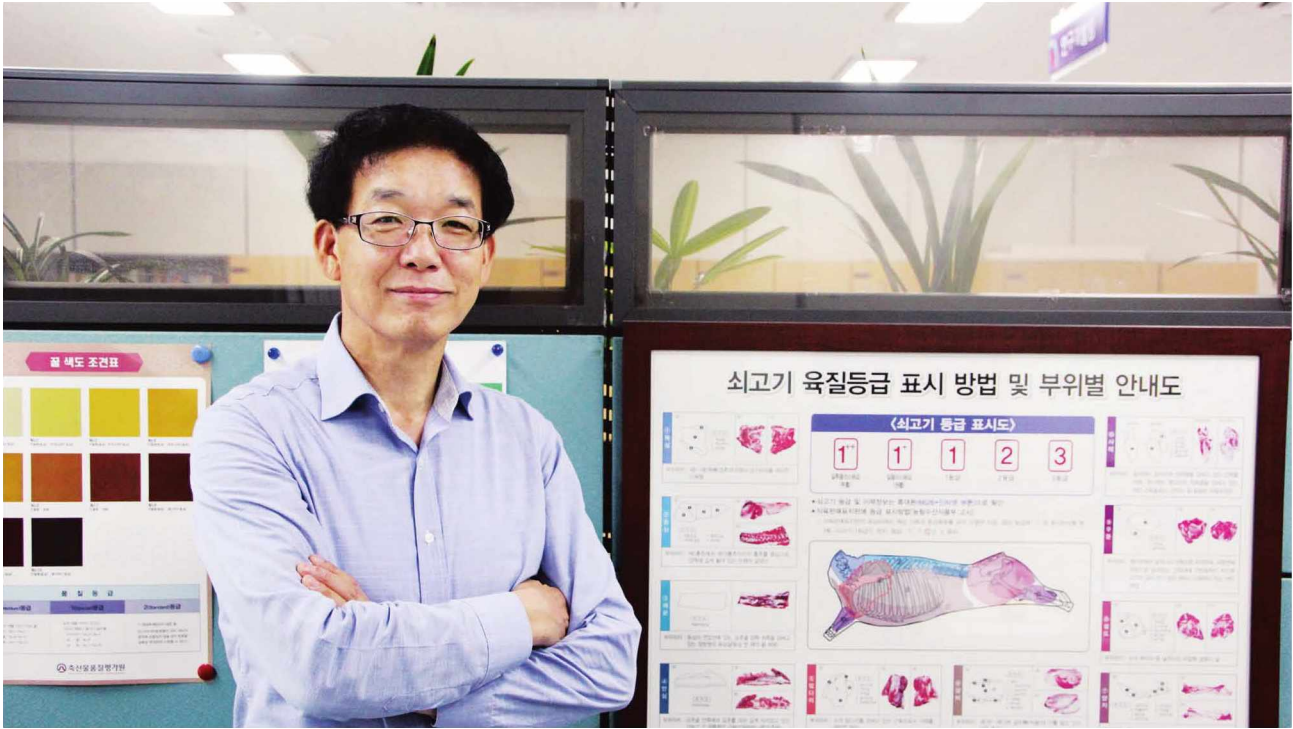
직장생활이라는 게 다 머리 아프기 마련이라지만 김관태 본부장의 업무 환경을 보면 때로 '발을 뺄고 잘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다. R&BD가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하거나, 아예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등 변화를 이뤄내는 것을 기반으로 하기에 어느 정도의 충돌과 고민은 늘 배경에 깔고 있게 된다. 김관태 본부장 자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하지만 나름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수긍할 정도다.

그럼에도 걱정을 더한 것은 국내 축산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최고등급제 기준 개정의 핵심이 바로 축평원의 R&BD본부이기 때문이다. 난이도가 높은 사업을 만나면 그만큼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자기기준을 세워놓고 내 잣대에 맞지 않으면 틀리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그건 틀림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만큼 기준도 잣대도 하나는 아닐 것이고, 쇠고기 등급판정 기준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현재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보완(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김 본부장을 보자면 과장 조금 더해 뭔가 경지에 이른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한다. "세상에 100이 어디 있겠나. 그래도 51:49라고 한 명이라도 더 이해시키고,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는데 그 말 안에 묘하게 뼈가 느껴진다.

그도 그렇겠다 싶은 게 1991년 공채 1기로 입사 후 26년간 축평원에서 계속 근무해온 그다. 한 업종에서 1만 시간 이상 근무하면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가 딱지는 진작 뎀 셈이다. 게다가 김관태 본부장은 축평원에 입사하기 전 축산과학원에 잠시 근무했었고, 2000년 1월 2일 입성한 후 거의 대부분을 생활한 본원에서도 유독 R&BD 쪽에 많이 관여해왔다. "젊은 시절에 공부를 별로 안 해 요즘 공부 많이 한다."는 농담이 전혀 믿기지 않게 일명 '머리 쓰는 일'을 많이 한 그인지라 아무래도 생각도 고민도 많을 수밖에 없었겠구나하고 자연히 납득하게 된다.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는 새로운 시각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도 축산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지만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다양성 있는 시각에서 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새로운 게 보인다. 그게 내가 보는 가능성이다.”

그러면서 김관태 본부장은 “우리조직도 좀 더 다양성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타공인 축산 전문 기관으로서 특히 축산 관련 학과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다 보니 한쪽으로 생각이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 여기서 벗어나 생각과 행동의 폭을 넓히려는 제언이다.

“세계의 강대국인 과거의 독일과 현재의 미국은 순혈주의가 아닌 다원주의 국가다. 그만큼 다양성과 창의성이 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강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본다. 그런데 축평원은 기관 특성상 외부 DNA 도입이 어렵다. 그 대체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특히, 공부가 우리원의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 정보사업팀에서 구축 중인 행정정보망시스템에 별도의 방을 만들고 각종 인문학 관련 동영상 등을 끌어다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폭넓은 사고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 중이다.”

업무적으로는 정보생산을 넘은 축산 정보 전문 기관으로서 축평원의 내일에 대한 꿈을 밝혔다. 축산물등급제와 이력제를

하는 기관으로서 필연적인 정보 생산 및 관리 기관으로 축평원의 역할. 그 단순한 생산 및 관리를 넘어 축산 빅데이터를 구축해 축산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물론 빅데이터의 구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일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구축만 되면 축산 컨설팅도 자연스레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농가 수익 증가를 넘어 산업 발전 전반과 자연스레 연결되며 우리 축산의 발전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더 많은 이들을 위해 이로운 일,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치 있는 일 아니겠나.”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 지으며 끝으로 “우리원이 많이 가지고 있는 축산 관련 정보를 잘 가공해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전 국민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KAPE누리 독자 여러분도 여기서 얻어지는 정보를 통해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공자보다는 노자처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게 좋다는 김관태 본부장. 조금은 소년 같다 싶을 만큼 새로운 생각과 시각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면서도 묘하게 날카로운 시각으로 직시하던 그와 마주하다 보니 “R&BD본부장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평이 달리나온 게 아니었구나 공감하게 됐다. ☺